

광교루문숲도서관
구림상림도서관
공두레도서관
상형공향숲속도서관
방배숲천경도서관
아차산숲속도서관
오동숲도서관
이진야기념도서관
진천군립도서관

K-라이브러리 홍보위원회

숲속
에서
마나
나
도서관



한국도서관협회



K-라이브러리 홍보위원회
숲속에서 만난 도서관



CONTENT



발간사	04
1. 광고푸른숲도서관	07
2. 구립상림도서관	21
3. 꿈두레도서관	37
4.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45
5.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	55
6. 아차산숲속도서관	67
7. 오동숲속도서관	79
8.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93
9. 진천군립도서관	109



발간사

한국도서관협회는 『숲속에서 만난 도서관』을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사회에 섬과 영감을 전하는 도서관들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전문위원회인 ‘K-라이브러리 홍보위원회’는 국내 도서관의 우수 운영 사례를 대국민 및 해외에 소개하고,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책자는 ‘K-라이브러리 홍보위원회’의 첫 성과물로, ‘숲속 도서관’이라는 주제 아래 전국 각지에서 자연환경 속에 자리 잡은 멋진 공공도서관 9곳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들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휴식의 공간이 되고, 지역 주민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문화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우리는 오히려 사람과 사람, 자연과 삶의 연결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숲과 공원 속에 자리한 도서관들은 그러한 연결의 가능성을 가장 아름답고 조용하게 증명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도서관 건축의 미학, 운영의 철학, 이용자의 목소리를 담아낸 이번 책자가 공공도서관의 다층적 가치와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한국도서관협회는 우리 도서관이 사람과 자연, 지역과 문화를 잇는 살아 있는 문화 플랫폼으로서 더 넓은 세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번 책자의 발간을 위해 애써주신 'K-라이브러리 홍보위원회' 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과 참여 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도서관협회장 곽 승 진

K-라이브러리 홍보위원회

숲속
에서
마나
나는
도서관





광교푸른숲도서관

송 은 경 위원
송은경도서관연구소 소장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 명 광교푸른숲도서관
- ▶ 도서관 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 호수로 131
- ▶ 도서관 규모 대지 22,086㎡, 건축물 4,577㎡
- ▶ 도서관 장서 전체장서량 62,098권(일반도서 39,032권, 어린이도서 23,066권), 장서 구성의 특징: 광교푸른숲도서관은 '힐링' 특성화 도서관으로 힐링과 관련된 마음 돌봄, 명상, 요가, 테라피 등을 주제로 한 자료를 폭넓게 구비하고 있음

▶ 홈페이지 등 주소

홈페이지 <https://www.suwonlib.go.kr/gp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wonlib>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suwon_lib

블로그 https://blog.naver.com/suwon_library

도서관 개요

▶ 도서관 비전

- **미래를 선도하는 지역공동체 중심 도서관**
 -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서관 기반 강화
 - 생활밀착형 도서관 강화
 - 공동체 구현을 위한 도서관 역할 강화
 - 도서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

▶ 도서관 역사

2018. 4. 12. 광고푸른숲도서관 개관

2020. 2. 12. 힐링독서공간 〈푸른숲 책뜰〉 개관

2020. 10. 23. 제25회 경기도건축문화상 금상 수상

▶ 도서관 사람들

총 19명(사서직 4명)

2023년도 연간 자료실 이용자 274,396명

2023년도 연간 푸른숲책뜰 이용자 6,221명

2023년도 연간 문화프로그램 참여인원 5,607명



▶ **도서관 공간**

지하1층 : 서고

1층 : 강당, 강의실, 멀티강의실, 다목적실

2층 : 종합자료실, 디지털자료실, 휴게실, 사무실

3층 : 어린이자료실, 테라스, 북카페

외부공간 : 푸른숲 책뜰

▶ **도서관 서비스**

• **책나루 서비스**

수원 시민의 이용률이 높은 7개 지하철 역사 내에 설치된 무인도서관을 이용하여 도서대출 및 반납이 가능한 서비스

•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가 해당 도서관에 없을 경우, 타 도서관에 신청하여 소장자료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원시의 24개 도서관 자료 공동 활용 서비스

•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도서관에 원하는 자료가 없을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자료를 서점에 있는 도서로 바로 대출 및 반납 할 수 있는 서비스

• **협약대학도서관 서비스**

수원 소재 대학교 중 경기대학교,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와 상호 교류 및 자료이용 협약을 맺어 도서관 회원이 대학도서관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 **NFC셀프대출 서비스**

휴대폰의 NFC기능을 활용하여 수원시도서관 앱을 통해 책 속의 RFID칩 도서정보를 인식해 이용자 스스로 대출하는 서비스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 푸른숲 책틀

광고푸른숲도서관은 부속시설로 숲속 통나무집 독서 공간인 푸른숲 책틀을 운영하고 있다.

총 5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일 3시간 이용하는 유료 독서 공간이다. 이곳은 가족, 친구, 지인과 함께하는 작은 힐링공간으로 2020년 2월 오픈되었는데 코로나가 한창인 2021~2022년에도 소규모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곳으로 매우 인기가 높았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매월 1일 다음 달 이용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이용자들에게 책나들이 꾸러미를 제공하며 독서를 장려하고, 공원산책독서, 가족과 함께하는 독서문화체험 <토닥토닥 힐링 독서캠프> 등을 이곳에서 운영하고 있다.



▲ 푸른숲책틀 전경



▲ 푸른숲책틀 중 '금강초롱실' 실내



• 수원시도서관과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도서관 상호교류협력
협약 기념 코너

수원시와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가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다시 2023년 10월 9일 수원시도서관과 프라이부르크시 도서관간에 상호교류협력 협약을 맺은 기념으로 3층 어린이자료실에 독일 소개도서와 프라이부르크시의 랜드마크인 전망대를 축소한 모양으로 서가를 제작 전시하고 있다.



▲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와의 우호교류협약식



▲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서관



▲ 입구에서 바라본 도서관



▲ 도서관 테라스 2층



▲ 도서관 테라스 3층



▲ 어린이 자료실 그린커튼



▲ 어린이 자료실 판백나무 독서오두막과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자료코너

▶ 프로그램

• 광고푸른숲도서관 특성화 주제 '힐링' 관련 독서문화프로그램

- 토닥토닥 힐링독서캠프

'푸른숲 책뜰'을 활용하여 매월 1회 진행하는 온 가족이 참여하는 독서프로그램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책뜰을 이용하며 아침독서, 책꾸러미활용 힐링시간, 독서지도 강사님과 함께하는 독후 활동프로그램 등으로 진행된다.



▲ 종합자료실 '힐링' 특화 자료 코너



▲ 시민참여 추천도서 코너 '시민 약사님의 책 방전'

- 광고푸른숲도서관 플리마켓 '책숲마실'

도시공원 속 공공도서관 환경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하는 플리마켓 행사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향유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예술 명인들의



서예서각, 동판공예, 솟대만들기, 캘리그래피, 펜드로잉, 보리아트, 규방공예, 압화공예, '책숲놀이터', '한솔수북' 등 출판사의 책 소개 및 판매, 도서관 이용자 물품교환판매(아나바다), 독일 문화체험, 버스킹 공연 등이 진행되었으며, 특히 문화예술 명인들의 작품소개와 체험활동은 많은 참가자들의 호응을 받는 시간이 되었다.

책숲마실은 23년 9월, 10월, 24년 4월, 5월에 개최되었고 향후 9월, 10월 총 4회 개최될 예정이다.



▲ 도서관플리마켓 책숲마실 행사 모습

- 휴식소리 콘서트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지역문화진흥원과 문화예술공동체 더뮤엘 주관으로 진행되었던 휴식소리 콘서트는 자연(꽃, 새, 물) 주제의 음악 연주, 나무로 만들어진 악기 및 호수공원 내 식물을 소개하는 플라워(Flower) 콘서트, 도심 속으로 옮겨진 나무 이야기와 그림책 <나무처럼>과 클래식이 함께하는 연주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1, 음악감상과 낮잠, 몸의 이완 또는 개별독서하는 슬리핑(Sleeping) 콘서트, 스윙재즈음악

+ 스윙재즈댄스 김잔디의 움직임 콘서트, 어린이의 상상 속 분수와 고래 이야기 그림책 <파란분수>와 클래식 음악의 그림책 클래식 콘서트2, 영화도 보고 영화 음악 합창, 영화 속 클래식 음악 감상의 시니어(Senior) 콘서트 등을 개최하여 도서관이 온종일 머무르면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하는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는 프로그램이었다.



▲ '오소록극장' 프로그램 진행 모습



▲ 공공도서관 문화가 있는날 공연 모습

- 오감으로 느끼는 진정한 휴식

아로마테라피와 전통차 체험, 숲길명상, 싱잉볼명상, 힐링요가 등으로 구성된 힐링프로그램으로 자신과 어울리는 향을 찾고 그 향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피로를 감소하는 방법을 배우고, 찾임을 따고, 볶고, 발효하는 시기와 기간에 따라 무수히 세분화되는 차의 세계를 탐구하고 체질에 맞는 차를 찾아 응용하는 법을 배웠다. 도서관 인근의 숲속에서 맑은 공기와 함께 요가와 명상을 체험하여 자연과 몸의 기운을 함께 느끼며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종합자료실 북큐레이션 코너 ▲ 도서관 중앙계단 푸른마루

- ‘톨레랑스’와 함께하는 인문학프로그램 <세계문화기행>
광고푸른숲도서관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톨레랑스’는 우호교류 및 협력을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세계문화기행>, <세계문학과 소통하기>, <세계문화탐방>, <세계의 도시, 문화를 품다>, <동남아 음식기행>, <세계의 음식문화> 등의 고품격 인문학 강좌를 도서관에 지원하여 내실 있는 프로그램 진행과 더불어 연구기관과 협력 및 소통하는 도서관 역할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도서관 사람들

• 마음의 꽃을 그려가는 펜드로잉동아리 ‘펜폴’

펜폴동아리는 2019년 5월 결성된 광고푸른숲도서관의 문화예술동아리이다. 회원 수 6명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18명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렇게 성장한 배경에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예술동아리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크다. 펜드로잉이라는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초보자도 상관없이 회원을 가입 받고 1년 가까이 지원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드로잉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후 자연스럽게 실력이

늘었고 꾸준히 그 실력을 연마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동아리 모임과 전시회 활동을 하고 있다.

전시작품은 광고푸른숲도서관뿐만 아니라 수원시의 다른 도서관으로도 순회전시를 하는 등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지역민이 참여하는 독서동아리(4개), 문화예술동아리(1개) 운영**

도서관 이야기

광고호수공원 숲속의 작은 오두막인 **푸른숲 책들**은 도서관 이용자들의 힐링공간이다.

2018년 4월 도서관이 개관하고, 입지 환경과 어우러지는 <힐링>이라는 도서관 특화가 선정되었다. 도서관 하면 뭔가 독서하고 공부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인문학 강연 뿐만 아니라 예술 전시회, 플리마켓, 요가, 문화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기존 이용하던 어린이부터 청년층뿐만 아니라 중년 이후 계층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데 광고푸른숲도서관의 특별히 독서 공간인 ‘푸른숲 책들’이 독서와 휴식, 문화와 여가를 온종일 즐기면서 마음의 공간을 알차게 채워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에 남겨진 생생한 이용 후기를 몇 자 남기면 다음과 같다.

- **제 삶의 작은 안식처(2024.05.30)**
“아이와 즐겨 찾는 곳, 푸른숲책들



아이는 이곳에 오면 피크닉 온 것 같고 행복하다고 해요.
아이를 무릎에 앉혀 같이 도란도란 책 읽으며 함께 하는
시간은 무엇보다 소중한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안식처가 제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늘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퇴직한 직장 동료들과 소모임했어요(2024.05.09.)**

“10여년 다니던 직장 퇴직한 동료와 만남을 가졌어요.
오랜 세월 매일 보다 오랜만에 보니 할 말도 많고 그간 지냈던
이야기에 시간가는 줄 몰랐네요.
산새 소리에 푸른숲에 세상 편한 오두막이 지난 이야기를
새록새록 꺼내기 좋은 시간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각자 조금씩 준비한 간식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만끽하는
시간였어요.”

• **사유하기 정말 좋은 곳이네요(2024.04.17.)**

“진정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기에 너무나도 풍요로운 환경.
아내와 돌이서 차 한잔 곁들이며 도란도란 우리 가족의 삶에
대해 발전적인 담소도 나누고,
일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움도 느끼면서,
정신적인 힐링을 만끽하던 그곳.
어쩌면 후기를 작성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그 공간에서 들리는 이름 모를 새 소리, 잔잔한 봄바람 소리,
그리고 야생 동물들의 속삭이듯 발소리.
정말이지 사유하기 딱 좋은 곳이네요!”

- **몸과 마음에 봄빛 물들이다(2024.04.11.)**

“푸른숲 책들 백리향 창으로 보이는 큰 나무 끝에 연둛빛 어린
잎들 바람에 살랑이는 아침에 도착하여 오전 시간을 오롯이
혼자 조용히 책과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고맙고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고라니랑 청설모랑 함께(2024.03.06.)**

“겨울 정취 물씬 나는 날
책을 읽다가도 자꾸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라니가 나무밑동에 앉아 쉬다 가더니 청설모 두 마리가
나무를 오르락 내리락 ~ 숲이 깨어나고 있네요.”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광교푸른숲도서관은 맑고 아름다운 2개의 호수와 울창한 숲이
함께 어우러진 뛰어난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입지적 강점을 활용
할 수 있는 곳이다. 누구나 이곳을 방문하면 너무 좋다, 예쁘다란
수식어를 붙이기 마련이다. 그러나 단순히 예쁜 도서관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경이로운 인간의 사고와
삼라만상, 온갖 인생사를 느낄 수 있는 책의 품에 안겨 여기에 오는
모든 분들이 온종일 편안하게 머무르거나 마음의 휴식과 위로를
느끼는 곳이길 바란다.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광교푸른숲도서관은 나에게 단순한 책의 보관 장소를 넘어, 지식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몇 년 전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나의 독서 습관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이후 도서관에서 지적 호기심과 사회적 교류의 폭을 넓혀 나갔다.

책을 읽는다는 것이 단지 글자를 눈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라는 것도 깨달았다. 그리고 책 속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고, 다른 이들과 그 감동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 나는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독서동아리도 운영하게 되었다. 독서동아리는 나와 같은 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을 나누는 자리로, 다양한 시각과 해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각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나의 견해를 더욱 넓히고 깊이 있게 다듬을 수 있었다. 정기적으로 모여 같은 책을 읽고 토론하며, 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과정도 매우 소중하게 느껴졌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서관을 알차게 이용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 이 자리를 빌려 광교푸른숲도서관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나는 새로운 세계를 만났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이들이 도서관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길 바란다.

(광교푸른숲도서관 5060독서회 임석원)



▲ 프라이부르크 전망대에서 바라본 도서관



▲ 입구에서 바라본 도서관



▲ 어린이 자료실 그린커튼



▲ 어린이 자료실 편백나무 독서오두막과 독일 프라이부르크시 자료코너



▲ 북큐레이션 코너



▲ 시민참여 추천도서 코너 '시민 약사님의 책 방전'



▲ 도서관 중앙계단 푸른마루



▲ 종합자료실 '힐링' 특화 자료 코너



구립상림도서관

박종범 위원
구립은평뉴타운도서관 관장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 명 구립상림도서관
- ▶ 도서관 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4로 48-25
- ▶ 도서관 규모 건축물 515.14㎡
- ▶ 도서관 장서 전체장서량 38,946권(정기간행물 71종, 생태 특성화 장서 834권)

▶ 홈페이지 등 주소

홈페이지 <https://lib.eplib.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uwonlib>

네이버카페 <https://cafe.naver.com/slilib>

유튜브 <https://www.youtube.com/@EPLIBRARY>

도서관 개요

▶ 도서관 비전

- 미래형 도서관화 향유 도시, 은평

▶ 도서관 역사

- 2009. 9. 23. 구립상림마을작은도서관 개관
- 2013. 3. 15. 책나래 서비스 실시
- 2016. 1. 2. 도서 대출 권수 확대(3권→5권) 실시
- 2016. 1. 28.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공공도서관 등록 승인
- 2016. 2. 18. (사)공공도서관협의회 가입
- 2016. 2. 19. 한국도서관협회 단체회원 가입
- 2016. 3. 29. 책이음 서비스 실시
- 2016. 11. 11. 1365 자원봉사센터 수요처 등록
- 2018. 1. 23. 정기간행물실 개설
- 2019. 8. 1. 북스타트 실시
- 2020. 7. 1. 임산부 택배 도서 대출 서비스 실시
- 2021. 4. 1. 구립상림도서관으로 기관명 변경
- 2021. 6. 1. 구립상림도서관 리모델링 완료 및 재개관
- 2021. 10. 13.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수상
- 2022. 11. 23. 사서데스크 리모델링 실시
- 2023. 3. 15. 국가지식자원공유서비스(국립중앙도서관 원문 서비스) 실시



▶ 도서관 사람들

- 총 6명(사서직 5명)
- 2023년도 연간 이용자 72,963명
- 2023년도 연간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15,211명

▶ 도서관 공간

- 1층 : 가족열람실, 사서데스크, 회원가입 PC, 음수대, 화장실, 장애인 화장실
- 2층 : 성인/아동열람실, 정기간행물 코너, 정보 검색 코너, 사서데스크, 생태교육실, 화장실

▶ 도서관 서비스

- **생애주기별 독서 교육**
어린이 인문 고전 프로그램 “재미있고 신비로운 북유럽 고전 문학 기행”, 엄마 북(BOOK)돋움 연계사업 “나를 치유하는 푸드 테라피”
- **도서관 이용 교육**
도서관 주간 맞이 이용자 교육 “내 꿈은 도서관에서 자라요”
- **관내 기관 연계 교육**
진관초등학교 협력 “도서관에 대해 알아봐요”, 진관고등학교 연계 “책과 함께 몽글몽글 추억 여행” 등
- **알파세대 대상 소통, 기술 융합 독서 교육**
소통형 독서 토론 프로그램 “도서관은 평등해”, 독서 게이미피케이션 프로그램 “독서를 PLAY 해볼까?”, 실감미디어 연계 독서 프로그램 “나의 AR친구” 등

- **교양 함양 교육**

도서관 지혜학교 “한국의 전통문화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와 즐거움”, 미디어교육 평생교실 “미디어, 보드게임과 한 판!”

- **문화 향유 교육**

2023년 문화가 있는 도서관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내!”, “호기심 팡팡! SMART 로봇!” 등

- **탐방형, 체험형 생태 교육**

“봄이가 여름이를 만나요~”, “가을이가 겨울이에게 인사해요~” 등

- **독서 연계형 생태 교육**

겨울 독서교실 “별별 식물 학교”, “도서관에서 들려주는 생태 이야기” 등

- **생태 도서 북큐레이션**

환경의 날 맞이 “바다로 떠나요!” 등

- **독서동아리**

성인 독서 동아리 “책소풍”, “엄마서가”, “독(讀)한 여인들”, 청소년 독서 동아리 “울타리”, 초등 독서 동아리 “북아리”, “송아리”, “책 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 상시 진행

- **현장 체험 학습**

인근 교육 기관 대상 도서관 이용 교육 및 독서 교육 상시 진행 (연간 34회 411명 참여)

- **유튜브**

상추(상림 사서 추천 도서) 등의 북큐레이션, “도서관으로 생태 산책 가자~”, “하루에 한시간 신화이야기” 활동 등 각종도서관



소식, “조금씩 방울토마토 키우기” 등 온라인 프로그램, “Get Read With Me” 등 ASMR 등을 진행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 인테리어 특징

구립상림도서관은 생태 특화 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작나무 원목과 패턴을 활용하여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자작나무 빛깔과 잘 어울리는 밝은 아이보리 컬러를 활용하여 도서관에서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넓은 유리창을 통하여 북한산과 이말산, 생태공원을 조망할 수 있어 봄에는 꽃, 여름엔 녹음, 가을엔 단풍, 겨울엔 설경을 감상할 수 있기에 독자와 함께 심신의 여유를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 생태공원에서 바라본 도서관 전경



▲ 가족열람실

- **생태교육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독서, 문화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생태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효과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음향 장비 등이 마련된 도서관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공간이다.



▲ 생태교육실

- ▶ **프로그램**

- **생태 특화 프로그램**

구립상림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생태 특화 프로그램이 매월 진행되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생애주기별 지식수준에 맞춰 생태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해 생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은 2024년 참여예산 「숲속 도서관 문화 활동 지원사업」으로 운영되는 “숲, 어디까지 알고 있니?”이다.



지역의 생태보전시민모임에서 설립한 생태교육 비영리단체 소속 산림교육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지역의 뒷동산에 올라가 계절별로 변화하는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관찰하고, 가족 단위로 참여한 지역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숲에서 자유롭게 뛰놀고 즐길 수 있는 숲놀이를 진행한다. 다양한 세대의 지역주민들이 함께 몸을 쓰고, 맘을 흘리며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탐방에서 관찰했던 주제들과 관련된 책을 읽고, 압화와 나뭇잎 프린팅 앨범, 나무 오르골, 단풍정원 화분 등 다양한 친환경 공예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성 향상과 생태 학습, 책 읽기의 즐거움, 미적 감각 및 창의력 등과 같은 개인 역량 개발에도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알파세대 대상 프로그램

초등학교 바로 옆에 위치한 도서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디지털 네이티브인 알파세대들이 진보된 디지털 환경을 통하여 책을 가까이하고, 독서에 흥미와 깊이를 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동시에 고도의 개인화와 팬데믹 시기로 인하여 사회성 향상이 어려웠던 알파세대들을 위하여 소통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작년에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던 동화 속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나만의 이야기로 탈바꿈하여 실감미디어 콘텐츠로 제작하는 프로그램과 더불어 독서 하브루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도서관 사람들

- 총 5인의 사서직과 1인의 미화직으로 구성된 우리 도서관은 적은 인원이지만 도서관 운영과 프로그램 기획 및 실시, 홍보, 시설 관리, 전산 관리, 환경미화 등 도서관 곳곳을 책임지고 있다.
- 일을 키우기 좋아하는 팀장과 차분하고 친절한 사서, 밝고 톡톡 튀는 사서, 포용력 있는 따뜻한 사서와 다소 서투르지만 매사에 열심히 하는 사서가 고루고루 포진해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서들이 각자가 하고 싶은 업무들을 쏟아내며 우당탕탕 도서관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플로깅이나 등산, 길고양이 집 지어주기, 탐정이 되어 추리해 보는 프로그램과 같이 도서관에서 보기 힘든 독특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내는 점이 우리 도서관의 특징이자 자랑이라고 생각한다.

▶ 기타

구립상림도서관은 환경공생형 도시인 은평 뉴타운의 생태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고, 국립공원인 북한산뿐만 아니라 이말산, 창릉천, 못자리골 습지 등 다양한 자연환경을 지척에 두고 있다. 이런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자연을 사랑하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다.

우리 도서관은 이러한 지역의 특징과 주민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생태 특화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생태 특화 자료를 모아둔 '생태 특화 코너' 뿐만 아니라 연중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생애주기별 '생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립상림도서관에서는 탐방과 관찰을 통해 생태를 학습하는 체험형 생태 교육 프로그램부터 독서 융합형 생태 교육, 공예 등 예술 활동과 결합한 생태 교육과 같이 다양한



주제를 활용하여 누구나 생태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는 생태 연계 프로그램 및 생태 정보, 생태 북큐레이션과 도서관 인근의 생태 환경 변화에 대한 동영상도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고 생각한다.

도서관 이야기

며칠 전 이용자가 도서관 앞에서 네잎클로버를 발견하셨다며 건네주시고 가셨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뜻한다며, 구립상림도서관의 사서들이 네잎클로버를 닦았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또, 도서관 맞은편 공원에 오는 군고구마 트럭이 동네에 소문난 맛집이어서 간혹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으로 전화하셔서 군고구마 트럭이 나왔는지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문밖으로 나가 트럭을 확인하고 답변드리곤 합니다. 간혹 확인해 주어서 고맙다고, 늘 폐관시간 쯤 방문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가 매번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고맙다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한 알씩을 선물하고 가시고는 합니다.

그러면 사서들은 저희를 고마운 존재로 여겨주는 이용자님의 마음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가지고 있던 작은 간식을 보답으로 내어드리고는 합니다.

이렇듯 구립상림도서관은 크고 멋진 시설이나 대규모의 사업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지역주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는 지역의 사랑방 같은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우리 도서관의 목표는 달달한 알밤 같은 도서관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쪼개어 도서관에 오시는 이용자분들이 도서관에 온 시간이 아깝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이 사용하는 비품은 저렴한 것을 애용하지만 행사에서만큼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소규모여서 실적이 되지 않더라도 참여자의 심금을 울리는 것이 저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매체시대에 흥미로운 것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니 도서관이 그것들을 대체할 만큼 메리트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들 머리를 맞대고 이용자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것들을, 시간이 조금 걸릴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퀄리티를 보여줄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이 구립상림도서관을 “거기 참 알찬 곳이야!”라고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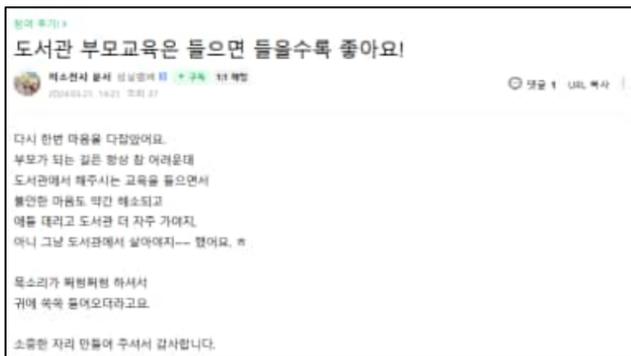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 **도서관 부모 교육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아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부모가 되는 길은 항상 어려운데 도서관에서 해주시는 교육을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도 약간 해소되고 애들 데리고 도서관 더 자주 가야지, 아니 그냥 도서관에서 살아야지~ 했어요. 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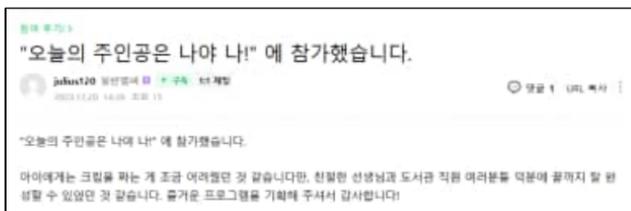
목소리가 찌렁찌렁하셔서 귀에 쓱쓱 들어오더라고요.
소중한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립상림도서관 네이버카페, 미소천사 윤서남)

- **“오늘의 주인공은 나야 내!”에 참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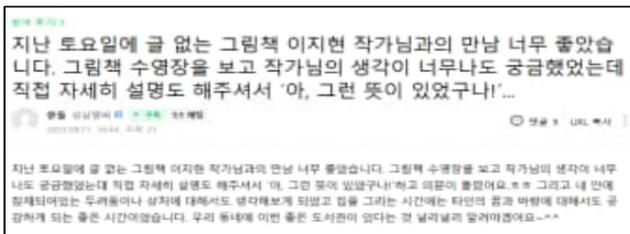
아이에게는 크림을 짜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만, 친절함 선생님과 도서관 직원 여러분들 덕분에 끝까지 잘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립상림도서관 네이버카페, julius120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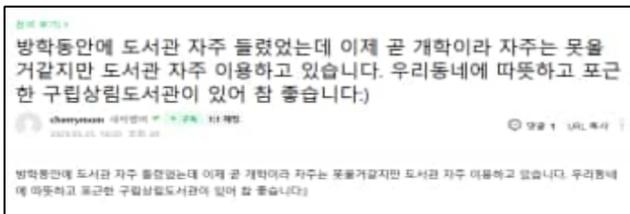
지난 토요일에 글 없는 그림책 이지현 작가님과의 만남 너무 좋았습니다. 그림책 수영장을 보고 작가님의 생각이 너무나도 궁금했었는데 직접 자세히 설명도 해주셔서 '아, 그런 뜻이 있었구나!'하고 의문이 풀렸어요. ㅎㅎ 그리고 내 안에 잠재된 두려움이나 상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 집을 그리는 시간에는 타인의 꿈과 바람에 대해서도 공감하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좋은 도서관이 있다는 것 널리 널리 알려야겠어요~^^

(구립상림도서관 네이버카페, 한돌님)



방학동안에 도서관 자주 들렸었는데 이제 곧 개학이라 자주는 못올거 같지만 도서관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에 따뜻하고 포근한 구립상림도서관이 있어 참 좋습니다:)

(구립상림도서관 네이버카페, cherrymom님)





• '봄이가 여름이를 만나요!'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아이가 많이 기다렸던 수업인데
 애벌레 들고나오는 모습을 보니 즐겁게 지낸 것 같았어요.
 움직이는 애벌레 만든 게 기억에 많이 남고,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셨다고 하네요. ^^
 6월 프로그램도 꼭 하고 싶다고 하니 신청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구립상림도서관 네이버카페, 엘리님)



• 나를 치유하는 푸드테라피에 참여하였어요 :)

먼저 '엄마의 어휘력'이라는 책의 내용을 요약해서 아이에게
 지혜롭게 말하고 대화하는 법을 알려주는 데 참 많은 공감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

1부에서는 어릴 적 가장 기억에 남는 부모님과의 대화를 견
 과류 재료를 가지고 그림으로 표현해 보기였는데, 강사님 말
 씌대로 처음에는 생각하기 어려운 듯했지만 하다 보니 알 수
 없는 감동 + 웃음이 났어요:)

한 명씩 돌아가며 그 그림의 의미를 나누며 표현할 때도 부끄럽기보다는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서 신나게 발표하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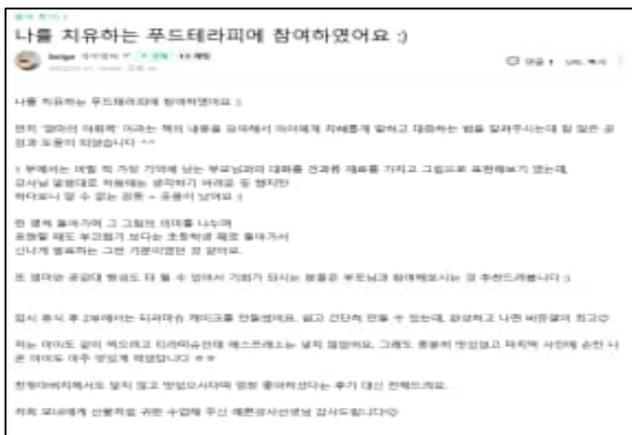
또 엄마와 공감대 형성도 더 될 수 있어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부모님과 참여해 보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 :)

잠시 휴식 후 2부에서는 티라미수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쉽고 간단히 만들 수 있는데, 완성하고 나면 비주얼이 최고, 저는 아이도 같이 먹으려고 티라미수인데 에스프레소는 넣지 않았어요. 그래도 충분히 만들었고 마지막 사진에 손만 나온 아이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ㅎㅎ

친정아버지께서도 달지 않고 맛있으시다며 엄청나게 좋아하셨다는 후기 대신 전해드려요.

저희 모녀에게 선물처럼 귀한 수업해 주신 예쁜 강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구립상립도서관 네이버카페, beige님)





은평 뉴타운 이사오고 가장 행복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도서관임
(구립상림도서관 유튜브, vedox100님)





▲ 도서관 전경



▲ 가족열람실



▲ 성인/아동열람실



▲ 생태교육실



▲ 생태공원에서 바라본 도서관 전경



▲ 도서관에서 바라본 생태공원 전경



허 지 은 위원

서울강동고등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 명 꿈두레도서관
- ▶ 도서관 위치 경기도 오산시 세마역로 20
- ▶ 도서관 규모 대지 8,342㎡, 건축물 5,317㎡
- ▶ 도서관 장서 139,670권(일반 68,245권, 아동 71,425권)
- ▶ 홈페이지 등 주소

홈페이지 <https://www.osanlibrary.go.kr/kkumdure/>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kumdure.osanlibrary/>

블로그 <https://blog.naver.com/kkumdure>

도서관 개요

▶ 도서관 비전

- 사람과 지식을 잇는 미래형 도서관
- 시민이 행복한 도서관

▶ 도서관 역사

2014. 04. 12. 꿈두레도서관 개관

2014. 07. 15. 녹색건축인증

▶ 도서관 사람들

직원 및 키움봉사회 일동

▶ 도서관 공간

지하1층 : 다목적홀, 보존서고, 주차장

1층 : 어린이자료실, 문화강좌실, 중정홀, 카페

2층 : 종합자료실, 문화강좌실, 회의실, 전시홀, 사무실

3층 : 옥상

외부공간 : 독서캠핑장, 어린이 놀이터

죽미공원 숲속 무장애 나눔길 : 꿈두레도서관 - 밤톨이유아숲 -
마을정원을 연계하여 자연에서 즐길 수 있는 숲속 체험장

▶ 도서관 서비스

• 어린이교실

월 1회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 **상·하반기 문화강좌**
3월~6월, 9월~12월에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
- **겨울·여름독서문화교실**
7~8월, 1~2월에 운영하는 강좌 프로그램
- **문화예술공연**
시민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야외 음악 공연 프로그램 운영
- **기타**
독서캠핑장, 숲속 힐링 북크닉 운영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 **‘독서캠핑장’ 운영**
독서캠핑장 8동을 운영하고 있다. 오산시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오산 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가족, 연인, 친구, 동아리, 소모임, 개인 등 다양하게 캠핑장 이용이 가능하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며 입실 시간 11시, 퇴실 시간 당일 16시이다. 독서, 토론 동아리 등 소모임 활동을 지원하고 개별적으로 준비한 간단한 식사나 다과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 독서캠핑장



▲ 캠핑장 내부

▶ 프로그램

• ‘숲 속 힐링 북크닉’ 운영

꿈두레도서관 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휴관일을 제외하고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한다. 워건, 도서, 매트, 보드게임 등 야외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피크닉 세트를 대여한다.



▲ 북크닉 테마 공간(바구니, 해먹)



▲ 숲속 힐링 북크닉

• **독서캠프**

연 4회 1박 2일 동안 독서캠프를 운영한다. 시민 독서단체, 지역아동센터 등 관내 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 및 운영한다. 부모와 친구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 **도서관 사람들**

• **시민 봉사단체 ‘키움봉사회’**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주도하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키움 봉사회를 운영한다. 서가정리, 책 보수, 감사 카드 만들기, 동화구연과 같이 재능 기부 강좌와 북 페스티벌 등을 운영한다.

• **도서관 내 실버 카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서관 내 실버카페를 운영한다.



◀ 실버 카페

▶ 기타

• ‘북 페스티벌’ 운영

매년 10월~11월에 북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는 10월 개최 예정이다. 시민 봉사단체 키움봉사회, 관내 고등학교 동아리, 시민 독서 문화단체가 중심이 되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서관 이야기

취재 당시 오산시 시민학교 탐방 프로그램 관련으로 방문한 학급 단위의 초등학생들이 있었다. 대출증을 발급받은 후 자동대출 반납기에서 설레는 얼굴로 직접 고른 책을 대출하는 모습이 아주 귀여웠다.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학생들에게 꿈두레 도서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학교 도서관보다 책이 많은 데다 숲에 둘러싸인 놀이터가 있어 특별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꿈두레 도서관 어린이 자료실은 외부로 향하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데, 숲과 놀이터로 바로 연결되어 도서관과 한 공간처럼 느껴졌다. 우르르 발걸음을 옮기는 학생들을 따라나섰다.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드넓은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까르르거리는 소리가 작품같이 어우러졌다. 신나게 놀고 난 학생들은 독서캠핑장에 들어가 옹기종기 모여 책을 읽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숲속에 자리한 도서관은 학생들의 몸과 마음에 좋은 기운을 가득 채워줬다.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설립 시기부터 독서캠핑장을 운영한 선도적인 도서관이다. 가족 친화 도서관으로 야외음악회, 북크닉 등 숲이라는 공간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방과 후에 갈 곳이 없어 매일 도서관에 왔던 초등학생 형제가 기억에 남는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곳을 찾아온 곳이 바로 도서관이었다. 이곳은 쾌적하고 안락한 자료실뿐만 아니라 숲과 놀이터까지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다.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 **독서캠핑장 관련**
 - 도서관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휴식 시간을 보내 만족스럽다.
 - 독서캠핑장이 주말 야간 운영에서 주간 운영으로 변경되어 자주 이용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
- **1박 2일 독서캠프 관련**
 - 프로그램 내용이 알차고 좋았다.
(함께 책 읽기, 빛 그림 공연, 빙고 게임 등)
 - 친구들과 밤새 게임을 하면서 놀 수 있어서 좋았다.



▶ 꿈두레 도서관 전경 ◀



▲ 중정홀/전시홀



▲ 어린이자료실



▲ 종합자료실



▲ 야외 놀이터



◀ 숲과 연결된 후문 출입구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조금주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정보과 과장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 명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 ▶ 도서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34-3 삼청공원 내
- ▶ 도서관 규모 지상 1층, 지하 1층, 건축물 206㎡
- ▶ 도서관 장서 전체장서량 7,566권, 장서 구성의 특징: 생태특화 도서관으로 생태를 주제로 한 자료를 폭 넓게 구비하고 있음
- ▶ 홈페이지 등 주소
홈페이지 https://lib.jongno.go.kr/menu/subpage/subpage_01/sub02.php

▶ 기타

삼청(三靑)이라는 이름 그대로 물과 숲,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맑은 북악산 남쪽 자락에 위치한 '삼청공원'이다. 삼청동은 근대 도서관의 발상지인 '취운정'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1920년대 이후 도서관의 명맥을 이은 곳이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이다.

2013년 공원 내 매점을 리모델링해 만들어진 숲속 작은 도서관으로 장서 3,000권으로 시작해 현재는 약 7천 5백여권의 장서를 자랑한다. 자연과 어울리는 소박하고 따뜻한 공간이다.

도서관 개요

▶ 도서관 역사

- 2013. 1. 오래된 매점 리모델링 공사 착공
- 2013. 10. 5. 삼청공원숲속도서관 개관
- 2014. 1. 종로문화재단 위탁운영
- 2014. 1. 북촌인심협동조합 재위탁운영
- 2023. 1.~5. 리모델링 공사
- 2023. 5. 종로문화재단 재위탁운영
- 2023. 6. 숲속도서관 재개관(06.21)
- 2023. 9. 생태특화 프로그램 <숲을 걷다 보다 느끼다>
- 2023. 10. 힐링체험 <숲에서 길을 묻다>
- 2023. 11. 유치원 연계 <우리 숲 이야기>
- 2023. 12. 인문학 특강 <자연과 마주하는 시간>

▶ 도서관 사람들

총 3명(사서직 3명)



▶ 도서관 공간

친근한 목구조로 계획하여 실내에서도 포근한 숲의 느낌이 살아있다. 지붕의 측창으로 스며들어오는 빛과 하늘은 공원의 한가로움을 더한다.

산책로 쪽에서 보면 단층의 아담한 건물로 보이나, 내부로 진입하면 후면의 계곡 측 지형단차를 이용하여 만든 하부층으로 연장된다. 이곳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어린이 전용공간이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햇빛 샤워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전면 통유리 좌석 열람석이 특징이다. 좌식 바닥은 온돌로 겨울에는 뜨끈뜨근하다.

숲속 도서관답게 건물 목조는 물론, 서가, 책상, 의자까지 모두 자작나무로 마감하여 주변 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것은 물론 도서관 내부에서도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다.

도서관 구석구석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이 묻어있다. 페인트까지 모두 친환경으로 마감하여 화학적인 냄새가 전혀 나지 않는 도서관이기도 하다. 도서관 밖에 바로 공원 화장실이 있지만 어린이들을 위해 실내에 어린이전용 화장실을 두고 있다.

▶ 도서관 서비스

- 생태 특화 인문학 강연 및 체험 프로그램
- 도서관 실내·외 공간 혁신 프로그램
- 유휴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동체 실현

▶ 기타

- 생태 주제도서 전시를 통한 특화도서관 역할 제고
숲속도서관의 이름에 맞게 나무와 숲, 식물, 자연에 관한 책들이 잘 큐레이션 되어 있다.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숲속에 위치한 작은 도서관이라 공간별 구분은 단순하다. 1층은 자료실 겸 열람실이고, 내부 분위기는 원목이라 따스한 느낌이다. 디자인과 구조가 친환경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진다.

도서관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간은 창틀 방이다. 움푹 파인 넓은 창틀에서 마음껏 누워 뒹굴뒹굴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다. 따뜻한 바닥 난방 덕분에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울 정도다. 날이 풀리면 도서관 밖의 나무 그늘에 앉아 책을 읽어도 좋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아래쪽 공간도 책장으로 만들어져 있다. 프로그램실로 사용되는 공간이다.

이 외에도 특이점이라면, 1층에 무인카페가 있다. 메뉴는 다양하지 않지만, 커피와 라테, 그리고 간단한 차와 탄산음료 등이 저렴한 가격에 제공된다. 커피머신 키오스크에서 메뉴 선택 후 결제하고 머신을 이용해 음료를 받으면 된다. 평일 점심이면 인근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러 일부러 들리기도 한다.



▲ 자료실 내부 모습



▶ 프로그램

• 도서관이 공원 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숲 체험 및 독서 활동, <숲을 보며 걷다 느끼다>
- 성인 힐링 숲 산책 프로그램, <숲에서 길을 묻다>
- 어린이집 연계 생태 전환교육, <우리 숲 이야기>
- 생태 전문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 <자연과 마주하는 시간>

도심 속 생태와 역사의 보고인 삼청공원의 특성을 살려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책 놀이지도사가 어린이들에게 우리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북아트 활동을 해보는 수업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초등 저학년 대상의 '숲에서 놀자'라는 도서관 바로 앞에 있는 체험장을 활용해서 숲해설가와 함께 자연 속에서 풀, 꽃, 나무를 관찰하는 활동으로 삼청공원 숲속 작은 도서관만의 상징적인 프로그램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어른들을 위한 '보태니컬 아트 세밀화 그리기 수업'과 같은 숲속도서관의 콘셉트에 맞는 역사, 숲, 자연에 어울리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한다.



▲ 2023년 6월 21일 재개관 기념식 음악회



▲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 (곤충 알아보기)

▶ 기타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0시~19시입니다.

매주 월요일, 1월 1일, 추석 당일은 휴무예요.

삼청공원 주차장 있으나 매우 협소해요. 대중교통 이용 혹은
따릉이 추천해 드려요.

삼청공원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정수기가 있어요. 음료나 음식물 반입은 금지입니다.

좌식, 입식 공간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도서관 내부에는 어린이 화장실만 있어요.

도서관 이야기

삼청공원은 1940년 우리나라 도시계획 공원 제1호로 지정된
공원이다. 경복궁 북동쪽의 북악산 기슭을 차지하는데, 오래된 수령의
소나무, 벚나무, 단풍나무가 울창한 아름다운 공원이다. 공원 입구의
작은 매점이 폐업하면서 그 자리에 숲속도서관이 계획되었다. 종로구가
기획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만들기’의 일환이었다. 공원을 찾는 어린
아이들과 엄마들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문화공간으로 조성되었다.

2018년 12월 7일 자 <뉴욕타임즈(The New York Times)>에
‘아날로그의 반격’의 저자이며, 유명 저널리스트인 데이비드 섹스
(David Sax, 1979~)가 “숲속에 숨은 문학 카페”로 삼청공원 숲속
도서관을 아래와 같이 소개하였다.

“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박하지만, 품격 있는 삶의 방식을 조용히
펼쳐 보여주는” 도서관이며,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최신 기술을
자랑하는 서울 도심에서 이 도서관은 그것에 대한 해독제로 특별히



설계되었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기술 중심의 분위기가 주를 이루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중심이 되어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명하고 있다.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북촌한옥마을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에 있다.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삼청공원 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생태 특화 도서관으로서 숲과 공원을 중심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공원을 산책하는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도심 속 문화공간이다. 도서관에서 여유롭게 독서를 즐기다 주변을 잠깐 둘러보기만 해도 눈이 정화되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울창한 숲과 나무들, 새들의 지저귀이 지친 일상에 위안을 준다.

이러한 자연이 숨 쉬는 도서관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숲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독서 프로그램과 생태교육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중 숲 체험 프로그램은 모두가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공원의 입지를 활용한 나무 관찰과 책으로만 봤던 곤충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고 체험하는 활동, 친구들과 함께 독서하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어 어린이와 부모님에게 휴식 같은 시간을 선사한다. 삼청동을 중심으로 종로 일대를 탐방하는 어른들을 위한 힐링 산책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독서와 함께 여유를 가지고 자연이 주는 이로움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남녀노소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있다. 넓은 창을 통해 사계절을 느끼며 독서를 즐기고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지친 일상 속 힐링의 공간을 제공한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도심 속 힐링 공간이자 지역사회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향시 음악이 흘러나오는 도서관이라 분위기가 유연하고 좋습니다. 도서관 밖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들리고 주변이 공원이라 나무가 많은 숲속의 환경과 잘 어우러져 있습니다. 숲속에 아름다운 도서관이 있다는 것이 힐링을 줍니다. 실내 분위기는 책을 읽기에 편하고, 프로그램실이 있어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공간 구조와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활용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도심 속의 휴식이자 낭만인 공간입니다. 독서와 커피를 즐기며 심을 경험해 본 게 얼마 만인지 모를 정도로 편안함을 주는 곳입니다. 도서관에 들어가 마음에 드는 책 한 권을 고르면 숲속의 고요함과 사람들의 차분함에 동요되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독서에 빠져들곤 합니다. 공원을 활용한 도서관 프로그램이 있어 아이는 숲을 체험하고, 엄마는 독서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심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계절마다 다른 숲의 모습을 보여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을 경험했습니다. 숲속도서관이라는 이름에 맞게 숲속에서 책을 읽는 듯한 느낌이고, 생태 관련 서적을 많이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초등학생 아이와 가기 좋은 도서관, 바로 옆이 유아숲체험원, 유아 숲 놀이터와 공원이라서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뛰어놀기도 좋아요.

아담한 규모의 숲속 도서관. 화이트, 우드 인테리어로 따스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적재적소에 테이블을 비롯한 가구들을 잘 배치한 것 같아요. 바깥 푸릇푸릇한 숲과 나무가 도서관의 통창으로 한눈에 들어오니 느낌이 더 좋아요. 삼청공원 숲속도서관은 자리도 많고 사람도 없어서 한가하게 내 시간을 보낼 수 있겠더라고요. 작은 도서관이지만 제법 책도 많은 편이고 사서 선생님의 큐레이션이 마음에 들어서 꽤 오랜 시간 진열된 책을 구경했어요. 의자에 앉아서 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바닥에 앉아 편한 자세로 있을 때 집중이 더 잘되는 책이 가끔 있어요. 신발을 벗고 올라가는 좌식 공간이 그런 의미에서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좀 더 편하게 책도 읽고 공간을 즐길 수 있었어요.

지하공간과 내부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요. 지하에서는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마치 숲속에서 책을 읽는 것처럼 푸릇푸릇한 숲과 나무, 자연을 오롯이 느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커플끼리 삼청동 데이트하기에도, 아이 데리고 놀러 오기에도 괜찮아 보입니다.

삼청공원에 있는 작고 아늑한 도서관, 숲속에서 읽는 책이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것 같아요.



▲ 도서관 전경 모습

2023년 6월 21일 재개관 기념식 음악회 ▶

▼ 자료실 모습



▲ 어린이 숲 체험 프로그램(공중 알아보기)

◀ 도서관 내부 생태도서 전시 코너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

정진수 위원

덕성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 명**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
- ▶ **도서관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160-7
- ▶ **도서관 규모** 대지 4,969㎡, 건축물 1,632㎡
- ▶ **도서관 장서** 전체장서량 37,069권, 장서구성 특징: 기존 십진 분류법 체계를 유지한 환경도서를 구성함, 환경도서에 대한 별치 부여하지 않고, 특화 공간구성을 하지 않음, 이용자들이 서가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환경도서를 노출시켜 이용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환경도서도서에 대한 별치 부여하지 않고, 특화 공간을 부여하지 않음. 일반도서와 함께 배가하면서 책등 라벨을 부착하여 구분함

▶ 홈페이지 등 주소

홈페이지 <https://forest.seocholib.or.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forestbbslib>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bslib/>

도서관 개요

▶ 도서관 비전

• 비전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도서관

• 목표

함께 배우고, 익히고, 실천하는 지식 플랫폼

• 가치

생각(Think), 경험(Experience), 행동(Behavior), 확산(Diffusion)

▶ LI(Library Identity)



〈개알둥지〉

개알둥지는 ‘깨닫고 알리는 개알둥지’ 라는 의미로 ‘새 둥지’와 비슷한 도서관 외관을 기반으로 만들었다.

동물을 가두면 ‘우리’가 되고 동물이 스스로 보금자리를 만들면



‘동지’가 된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의 깨알동지는 주민 스스로가 지식, 생각, 가치관을 키워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 도서관 역사

- 2023. 2. 수탁기관(에코나우) 선정
- 2023. 5.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 준공
- 2023. 6. 24. 서초구립 방배숲환경도서관 개관

▶ 도서관 사람들

총 14명(사서직 11명)
 환경서포터즈 ‘깨알러’ 구성
 문헌정보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방배숲 예비도서관인’
 도서정리, 재능기부, 책 읽어주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자원봉사자

▶ 도서관 공간

- 1층 : 영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종합자료실, 친환경카페,
세미나실, 중앙정원
- 2층 : 옥상정원, 세미나실

▶ 도서관 서비스

- **정보서비스**
 - 깨알 환경 박사 : 환경 특화자료 아카이빙 서비스
 - 생활환경정보통 : 사서가 직접 정보원을 수집하고 재생산하여 환경정보를 제공함
- **환경가치 실현**
 - 깨알 동지 실천 존 : 이용자와 함께하는 환경 실천 프로그램

- 깨알 등지 나눔 존 : 이용자와 함께 종이 팩, 멸균 팩 수거 활동 진행
- 방배숲 불 끄기 DAY : 한 달에 두 번 에너지절약 실천의 날 (자료실 전등 최소화, 전자장비 가동 최소화, 냉난방기 가동 최적화)
- **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
 - 깨알 숲 학교 : 도서관탐조단, 방배숲 숲체험교실
 -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 어린이집과 유치원 견학 시 아이들에게 도서관 이용 교육과 더불어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도 진행함
 - 방배숲 사서인형극단 : 환경을 주제로 한 인형극 공연을 사서가 직접 진행함
 - 방배숲 에코패스 : 도서관 퀴즈 및 환경 퀴즈 스탬프 투어
- **기타 독서 문화프로그램**
 - 깨알 인문학 : 환경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인문 독서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
 - 서리플 리더(reader)
 - &리더(leader)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 **인간의 생애주기와 숲의 성장주기를 연결한 자료실 명**
방배숲환경도서관의 자료실 명은 '사람과 숲의 성장주기'를 매칭하여 자료실 명을 지었다.



영유아는 '새싹', 어린이는 '잎새', 일반 성인은 '열매'로 보았으며, 가운데 중정을 중심으로 시계방향으로 자료실을 배치하였다. 공간의 용도와 목적에 맞게 '이어진 숲', '고요한 숲'을 구성하였다.



▲ 열매, 숲(일반자료실)



▲ 잎새, 숲(어린이자료실)

▶ 프로그램

• 이용자와 함께하는 환경 가치의 실현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이용자와 함께 환경 가치를 실현 시키는 참여형 캠페인 활동을 진행한다.

'양치 컵 사용하기', '손수건 사용하기' 등과 같이 작은 실천을 수치화하여 매달 환경적 성과를 이용자와 공유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많은 디지털기기 가동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약 실천의 날을 운영하여 환경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깨알 등지 실천 존 : 이용자와 함께하는 환경 실천 프로그램



◀ 개알둥지 나눔 존

- 개알 둥지 나눔 존 : 이용자와 함께 종이 팩, 멸균 팩 수거 활동 진행



◀ 개알둥지 환경 실천 존

- 방배숲 불끄기 DAY : 한 달에 두 번 에너지절약 실천의 날 운영 (자료실 전등 최소화, 전자장비 기동 최소화, 냉난방기 기동 최적화)



• 환경 교육 및 프로그램

방배숲환경도서관은 도서관 이용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환경의 소중함과 환경 교육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어린이 집과 유치원 견학 방문 시 도서관 이용 교육과 더불어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환경을 주제로 한 인형극을 사서들이 직접 진행도 한다. 또한 방배숲환경도서관 제2자료실인 '서리풀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생태 및 환경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깨알 숲 학교 : 도서관탐조단, 방배숲 숲체험교실
-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 : 어린이집과 유치원 견학 시 아이들에게 도서관 이용 교육과 더불어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도 진행함
- 방배숲 사서인형극단 : 환경을 주제로 한 인형극 공연을 사서가 직접 진행함
- 방배숲 에코패스 : 도서관 퀴즈 및 환경 퀴즈 스탬프 투어

▶ 도서관 사람들

• 환경서포터즈 '깨알러' 구성

방배숲환경도서관은 대학생으로 구성된 환경서포터즈 '깨알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깨알러는 지역 주민과 함께 환경 가치를 공유하고 실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문헌정보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방배숲 예비도서관인'

방배숲환경도서관은 문헌정보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방배숲 예비도서관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도서관인들은 방배숲 직원들이 직접 도서관 업무 분야별로 교육 실시 후 학생들이 프로그램 및 사업을 기획해 보는 과정을 갖고 있다.

- **지역 주민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 또한 도서 정리, 재능기부, 책 읽어주기와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도서관 이야기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지난 1년 동안 도서관 운영과 환경 실천 서비스를 통해 친환경적 성과를 이루었다.

먼저, 도서관 시설로 갖춰진 '태양광 발전시스템'과 '제로웨이스트 카페 운영'이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통해 1년 동안 이산화탄소 약 11.8톤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었고, 제로웨이스트 카페 운영을 통해 총 50,139개의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 두 개의 시설로 절감한 탄소량은 소나무 1,316 그루를 심는 효과와 같다.

두 번째, 친환경 정책 및 서비스 부분이다. 방배숲환경도서관 직원은 이면지 사용, 물티슈 미사용 등의 작은 환경 실천을 통해 142.5kg 온실가스 감축하는 효과를 가졌고, 이용자와 함께 참여하는 '깨알동지 환경실천 존' 운영을 통해 약 23,218.5kg의 온실가스 감축, 기타 도서관 정책 및 에코라이프 실천으로 총 3,518 그루의 나무를 심은 효과를 보였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관계기관과의 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에 에코라이프를 실천하는 거점 공간이 되고자 한다.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도서관을 개관하고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환경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한 물음이었다.

지금 전 세계는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최고조로 높아져 있다. 이에 우리 사회도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를 위한 'ESG 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공공도서관 또한 그 개념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한 개인의 노력은 환경의 가치를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하지만 다수의 사람은 환경문제를 왜 인식해야 하고, 무엇을 알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다. 환경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은 많다. 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주민과 유대감을 형성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많지 않다.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유대감을 형성하는 기관이며, 지난 '2023년 서울시민 문화 향유 실태조사' 결과 거주지 주변 공공 문화시설로 많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이 꼽혀 다른 통상적인 문화서비스 시설보다 이용률이 높았다. 공공 도서관은 지역 주민들의 참여형 활동을 이끌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따라서, 도서관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기후 위기' 라는 환경문제를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환경의 가치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가장 친근한 존재이다.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생겨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주말에 아이들의 울고 웃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서관 주변에는 대형 평수의 아파트들이 많아 은퇴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있더라도 자녀 수가 많지 않고, 예전처럼 동네 골목에 나와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을 목격하는 것이 드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배숲환경도서관에 평일이면 숲 체험하러 오는 유아들, 주말에 아빠 엄마 손 붙잡고 도서관에 오는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 예전 젊었을 때 어린 자녀들과 함께 보냈던 즐거웠던 시간이 생각나게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듭니다. 방배숲환경도서관이 집 앞에 있어서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 상공에서 본 도서관(봄)



▲ 상공에서 본 도서관(가을)



▲ 도서관 입구



▲ 중앙정원에서 바라본 하늘



▲ 서가에서 바라본 중앙정원



▲ 미디어 월



▲ 햇살, 들(중앙정원) 행사



▲ 환경 북토크



▲ 루프탑 음악회



▲ 구름, 들(옥상) 행사

아차산숲속도서관

정 영 미 위원

동의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 명 아차산숲속도서관
- ▶ 도서관 위치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139
- ▶ 도서관 규모 건축물 388.92㎡
- ▶ 도서관 장서 전체 장서량 9,065권(연속간행물 22종), 장서구성의 특징: 아동도서가 3,974권으로 전체 도서 수의 43.8%를 차지함, 주제별은 문학이 3,880권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회과학, 예술, 순수과학의 순으로 많음. 단, 아동도서의 경우에는 문학 다음으로 순수과학 분야의 주제 도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함, 아트(art) 및 디지털컨텐츠 특화 도서관으로 예술분야 도서의 구비 비율이 타 도서관에 비해 높은 편임, 99인치 DID를 활용한 디지털 갤러리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영화 5,000작을 제공하고 있음

▶ 홈페이지 등 주소

홈 페이지 <https://www.gwangjinlib.seoul.kr/achasan/index.do>

도서관 개요

▶ 도서관 비전

- **미션**

정보, 교육, 문화의 사회적 평등실현으로 성숙한 시민사회 만들기

- **비전**

새로운 도서관 가치를 창출하자!!(We Make New Library!!)
도서관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을 뛰어 넘게 하자

- **목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는 커뮤니티 중심 축

▶ 도서관 역사

2022. 8. 19. 아차산숲속도서관 시범운영 개관

2022. 10. 7. 아차산숲속도서관 개관식

2022. 8.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시작

2022. 9.~10. 아차산숲속도서관 개관기념행사(동아리 한마당, 저자강연회, 옛이야기 마당, 도슨트 강연, 초청 공연 등) 운영

2022. 9. 아차산숲속도서관 북큐레이션 운영 시작

2022. 12. 아차산 북스테이 운영



- 2023. 1. 관내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교실 운영
- 2023.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 2023. 6. '환경의 달' 기념 <아차산 플로깅-> 운영
- 2023. 8. 개관 1주년 행사 '아차산 숲속 생일파티' 운영
- 2023. 4./9.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 2024. 5./6. 광진 야외도서관 운영

▶ 도서관 사람들

총 4인(사서직 3인)

광진구립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 도서관 공간

1층 : 자료실, 스마트 탭 대여

2층 : 책심터, 사무실, 무인카페

외부공간 : 어울림정원, 황토맨발길

▶ 도서관 서비스

• 도서관 인 더 숲

'도서관 인 더 숲'은 숲속 도서관과 아차산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다.

- 아차산 탐험대

초등 1~2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을 통해 함께 읽고 절기에 맞는 생태 놀이와 아차산을 탐험하며 숲 체험을 한다.

- 아차산 관찰대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아차산 산책과 관찰,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짧은 글쓰기 수업을 한다.

- 숲속, 그림책 주인공 인형 만들기
성인 대상으로 그림책을 읽고 직접 만든 그림책 주인공 인형을 책 놀이에 활용하여 자녀들의 상상력 기르는 방법을 강의한다.

- **여름/겨울방학 독서 교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 관내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방학 독서 교실을 내가 사는 곳의 역사 이야기, 똑똑한 미디어 놀이터, 6월 환경의 달을 맞이한 해피벌스데이 등을 주제로 운영한다.



- **정기 교육/문화 프로그램(연 4회)**

- 전래놀이 한마당
초등 1~4학년을 대상으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되었다.
- 아차산 생생 드로잉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생태 미술 프로그램이다. 2023년에 운영되었다.
- 꽃으로 만난 사이
성인 대상으로 운영하는 원예 치유 프로그램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 숲속, 그림책 주인공 인형 만들기
그림책 속 주인공의 인형을 숲속 재료로 만드는 프로그램
으로 2024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 **아차산복스데이**

가족 단위의 도서관 야간 프로그램이다. 분기별로 1회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 단위로 12팀을 받는다. 내 생애 첫 미술관, 트래킹을 포함한 야간 곤충 탐험대, 야간 별자리 체험, 예술의 밤, 송년의 밤 등을 운영한다.

- **원화 전시회**

출판사와 연계한 월별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진행한다. 2024년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바빠요 바빠>(보리), <수박수영장>(창비), <쓰레기통 요정>(책읽는곰), <한글, 우리말을 담는 그릇>(책읽는곰) 등 그림책 원화 전시회를 진행했다.

- **가정의 달 기념 프로그램**

〈호랑이 생일날이겠다〉의 강혜숙 작가와 ‘작가와와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당신의 슬픔을 훔칠게요〉의 기현 시인과 함께하는 저자 강연, 사전 신청으로 받은 고민에 대한 ‘시와 음악 처방’ 프로그램, 한이준 도슨트와 함께하는 〈내 생애 첫 미술관〉 북스테이를 진행하였다.

- **독서의 달 기념 프로그램**

독서의 달을 기념하여 2023년 9월에는 〈숲속 재봉사〉의 최향량 작가와 ‘작가와와 만남’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이 외에도 동서울 천문대와 함께 ‘아차산 숲속 반짝이는 별: 아차산 북스테이’ 프로그램과 독서의 달 뽑기 이벤트, 사서가 선정한 ‘독서의 달 권장 도서 목록’을 제공하고 원화 전시와 프로그램 엮서 전시를 운영하였다.



- **아차산 숲속도서관 개관기념 ‘아차산 숲속 생일파티’**

‘아차산 숲속 필름’이라는 포토존을 운영하고 성인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작가 강연회를 각각 진행하였다. 또한, 축하 메시지 남긴 이용자를 대상으로 ‘아차산 랜덤 뽑기’ 이벤트와 ‘아차산



숲속도서관에 한마디'를 진행하였다.

- **예술×역사 ACHASAN(Art Cross History Academy SAN)**
2023년 11월에 진행했던 예술과 역사 관련 명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다. 아트컬렉터 이소영 작가와 <조선왕조실록>의 박시백 작가가 강연하였다.
- **송년의 달 기념**
<90년대생이 온다>의 임홍택 작가와 저자 강연을 진행하였고 초등생 자녀를 포함한 가족 10팀과 가족과 즐거운 연말을 보내는 '아차산 겨울 달밤: 아차산 북스테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을 꾸며 운영하였다.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 **연결성이 높은 개방된 공간**

높이감 있는 서가, 내외부 전체 공간이 연결된 개방감, 아늑한 조명, 친환경 소재의 고급 인테리어 등 마치 숲속 갤러리를 연상할 수 있다. 인생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도서관으로 알려져 남녀노소, 특히 젊은 세대도 많이 찾고 있다.

좌석 수가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단 한 편을 책을 읽을 수 있는 계단 좌석으로 마련했다. 이 공간은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으로 주말이면 계단 좌석부터 자리가 찬다.

- **2층 야외의 책쉼터**

도서관의 2층 야외에는 테이블과 벤치를 마련하여 숲속에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이 공간은 도서관 휴관일에도 개방되는 곳이기 때문에 365일 언제나 이용가능한 곳이다.

- ▶ **프로그램**

- **숲속 & 자연 & 아트를 중심으로 특화된 프로그램**

숲속 & 자연 & 아트를 주요 키워드로 한 아차산 숲속도서관만의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아차산 인 더 숲 탐험대/ 관찰대

이 프로그램은 아차산 숲속도서관 인기 Top! 프로그램으로 접수 시작 5초 만에 마감된다.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이 평소 경험할 수 없는 자연과 생태를 체험할 수 있는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 아차산 북스테이

아차산 숲속도서관은 숲속에 있는 특성으로 운영 종료 시간이 18시이다. 그래서 야간에 가족 단위로 도서관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다. 다양한 주제의 강의,



문화 체험, 탐험 등을 주제로 밤의 도서관을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불 꺼진 밤의 숲속도서관! 또 다른 분위기의 도서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 야외도서관

도서관을 외부로 확장해 이용자에게 다양한 독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아차산 숲속도서관 근처에 있는 어울림 정원에 야외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다. 북크닉, 북캠핑존을 통한 휴식 공간 제공, 테마별 도서 제공, 각종 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문화를 누리고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확장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즐거운 일상을 선물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아차산 숲속도서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누구나가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드리는 도서관입니다. 이 공간을 이용하는 내가 귀하고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 느낌! 그래서 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는 공간입니다.

처음 우리 도서관에 들어오시는 분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습니다. 와~! (오른쪽, 왼쪽 살피기), 예쁘다~! (왼쪽 높은 층고와 개방감 있는 서가, 대리석의 긴 테이블을 봄), 오~! (오른쪽 어린이 서가와 99인치 DID에 시선 고정됨),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가면서 계단 좌석을 확인하고 무인카페와 잡지 서가가 있는 곳을 확인합니다. 그 후 본인이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독서를 시작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과 함께!)

또 한 가지 귀한 풍경이 있습니다. “내가 얘기한 도서관이 여기야~어때? 예쁘지? , 여기 되게 좋아” 이렇게 우리 도서관을 가족, 지인에게 소개하며 동반하여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홍보하지 않아도 이용자분들께서 홍보해 주시는 그런 도서관이죠.

저는 사람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의 힘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서관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이를 지속하기 위해 더 촘촘하게 서비스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차산 숲속도서관 정종희 관장)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공간 자체가 힐링~ '아차산 숲속도서관'에서 책 한 권 딱딱!, 광진구의 큰 쉼터가 되어 주는 아차산에서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는 도서관”

(「내 손안에 서울」 유서경 시민기자)



“1층의 층고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 아차산에서 느꼈던 개방감을 도서관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공간만 놓고 보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님에도 무언가 광활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다. ... 이런 곳에 오면 꼭 다른 책보다는 인문 도서나 기행 도서를 특히 읽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 이색적인 도서관에 오다 보니 서울 속에서도 무언가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기분이 드는 것 같다.”

(네이버 블로그 <루네로의 북마크>)

“산 속에 자리 잡은 쉼터 같은 도서관이에요. 등산로를 따라 산책도 하고~ 잠시 쉴 겸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너무 좋은 코스 일 듯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오늘도가평 키즈풀빌라>)

“도서관 내부는 현대적이고 깔끔한 인테리어였어요. 우드톤을 사용하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요. 창문을 통해 보이는 푸른 숲과 신선한 공기는 독서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추천해 드려요.”

(인스타그램 <다람지니's travel moment>)



▲ 아차산숲속도서관 전경



▲ 아차산숲속도서관 근처의 아차산어울림정원



▲ 아차산숲속도서관 책심터 입구



▲ 아차산숲속도서관
1층 자료실



▲ 스마트 탭 대여 공간



▲ 아차산숲속도서관
2층 자료실

오동숲속도서관

노영희 위원장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명 오동숲속도서관
- ▶ 도서관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가길 110-10
- ▶ 도서관규모 대지 997.5㎡, 건축물 431.2㎡
- ▶ 도서관장서 전체장서량 9,052권(일반도서 6755권, 어린이도서 2,297권, 정기간행물 10종), 장서 구성의 특징: 아동도서가 상당히 많음

▶ 홈페이지 등 주소

홈페이지 <https://www.sbiblib.seoul.kr/odlib/index.do>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sbiblib>

블로그 <https://sbilib.tistory.com/>

도서관 개요

▶ 도서관 비전

• 핵심 가치

다양성 : 개인의 공성 존중과 확대

상호성 : 서로를 연결하며 풍요로운 공동체 완성

포용성 : 소외와 배제 없는 지역사회로의 변화

• 행동 원칙

소통, 협력, 신뢰

• 4대 전략 방향 (8대 핵심과제)

1. 개인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도서관

시민의 힘을 키우는 문화서비스 확대, 세대별, 개인별 정보 서비스 개발 및 확대

2.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다양한 커뮤니티 확대 및 소통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체 역량 강화,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강화

3. 사회적 표용을 실천하는 도서관

경계를 넘는 서비스의 연계, 인프라 개선을 통한 정보 접근성 강화

4. 미래를 여는 도서관 혁신

사람 중심의 운영체계 구축, 조직과 서비스 혁신을 통한 도서관 직원 역량 강화



▶ 도서관 역사

- 2022. 10. 18. 숲속도서관(가칭) 개관 준비팀 구성
- 2022. 12. 오동숲속도서관 준공
- 2022. 12. 15. '오동숲속도서관' 명칭 확정
- 2023. 3. 1. 장위행복누리도서관 분관 지정
- 2023. 5. 2. 오동숲속도서관(책 심터) 개관식
- 2023. 5. 6.~6. 24. 오동근린공원 책심터 개관기념 프로그램
(13회차)
- 2023. 5. 26.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시 시찰단 방문
- 2023. 6. 15. 대출반납서비스 시작
- 2023. 7. 20. 조류친화건축물 인증
- 2023. 8. 9. 세계스카우트잰버리 대원 방문
- 2023. 8. 18. 여름방학프로그램 <여름방학 운동회> 운영
- 2023. 9. 11.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시 시찰단 방문
- 2023. 9. 20. 도서관 내 카페 운영 시작
- 2023. 9. 22. <오동숲속도서관의 밤> 운영
- 2023. 9. 26.~10. 11. 2023 동네예술광부展 <오감의책장>
전시(2차) 진행
- 2023. 10. 7. 2023 동네예술광부展 <오감의 책장> 연계
프로그램 '카드지갑 만들기 워크숍' 진행(2회차)
- 2023. 10. 15. <우리는 꿀벌과 함께 살아요> 운영 (2회차)
- 2023. 10. 17.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시 시장 대표단 방문
- 2023. 10. 18.~11. 5. 이야기청_성북 <주름의 숲> 전시 및
작가 퍼포먼스 진행
- 2023. 10. 28. 2023 한국건축가협회 건축상 수상

2023. 11. 9~11. 22. <라이프스타일 레시피> 운영(3회차)
 2023. 12. 6. 2023년 제21회 대한민국목조건축대전 특별상 수상
 2023. 12. 12.~2024. 1. 15. 오동숲속도서관의 선물 프로그램 운영
 - '아늑한 선물' 전시
 - 안형수 트리오와 함께하는 오동숲속도서관 음악회
 - 어린이 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
 2023. 12. 15. 대만국립공공정보도서관 시찰단 방문

▶ 도서관 사람들

총 4인(사서 3인)

▶ 도서관 공간

1층 : 자료실, 북카페, 사무실, 회랑

외부공간 : 주변 정자, 유아 숲 체험원, 들꽃향기원, 산책로, 월곡정 등

▶ 도서관 서비스

• 성북 특특 e-로운 한뼘 도서관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북 리더기 대여 서비스

리더기 대여 서비스란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콘텐츠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리더기를 장기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

• 오동숲속도서관 여름 운동회

• 나만의 감정책 만들기 2탄

• 12월에는 오!감만족 오!동숲속도서관



- 봄날의 가곡
- 오동숲속도서관의 선물
- 오동숲속도서관 크리스마스 프로그램
- 라이프스타일 레시피
- 우리는 꽃벌과 함께 살아요
- 카드지갑 만들기 워크숍
- 오동숲속도서관의 밤: 별, 달 그리고 책
- 이야기청 프로그램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 **유아 숲 체험원**

어린이들이 직접 숲을 체험해 보는 공간이며 다양한 체험 활동 또한 가능하다. 오동근린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다.



- **월곡정**

12세의 어린 나이에 죽은 고종의 만아들 '완왕'의 못자리였다. 도서관에서 15분가량 소요된다.



- ▶ **프로그램**

- **오동숲속도서관 여름방학 운동회**

2023년 1회차가 끝난 이후 인기가 좋아 올해 초등학생 30명의 대상으로 2회차를 진행하려고 모집 중이다.





• **나만의 감정책 만들기**

독서 논술 지도사, 감정 상담 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하신 '박미란' 지도사님과 '내 마음이 왜 이럴까?'라는 책을 읽으며 감정을 정리해 보고 자아를 정립하는 시간을 가진다. 7~9세 10명, 10~12세 7명을 대상으로 총 2회 운영된다.



• 우리는 꿀벌과 함께 살아요

7~10세의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꿀벌에 대해 알아보고 꿀벌을 가까이에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종류의 꿀을 먹어 보며 꿀벌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오동 숲속도서관의 장점으로는 숲의 자연풍경을 즐기면서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오동 숲속도서관에서 창가에 앉아 숲을 바라보며 독서하면 책도 더 잘 읽어지고 정말 힐링을 하시면서 독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공간이 엄청나게 크지 않고, 숲이 이쁘게 보이는 창가 자리는 수요가 많아 앉기 힘들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오동숲속도서관 사서 배OO)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오동 숲속 도서관 > 숲속으로 떠나는 책 여행

(네이버 블로그, 알려준다짱)

월성, 열각

오동 숲속 도서관 > 숲속으로 떠나는 책 여행.

 알려준다짱 2024. 6. 29. 9:30

11월 후기 :

장위동 가볼만한 곳, 힐링명소_오동 숲속 도서관

(네이버 블로그, OLIVE님)



커뮤니티

장위동가볼만한 곳, 힐링명소_오동 숲속 도서관



OJIVE 2024. 2. 26. 1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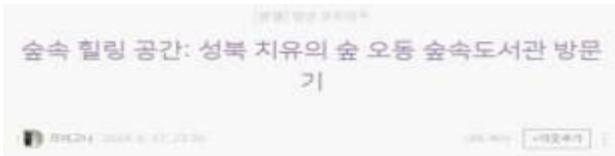
120 views

+이웃추가

장위동가볼만한 곳, 힐링명소_오동 숲속 도서관

숲속 힐링 공간 : 성북 치유의 숲 오동 숲속도서관 방문기

(네이버 블로그, 프레고나님)



오랫동안 공사를 했었는데 얼마 전 다 지어졌네요. 밤에만 와봐서 안에는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다음에는 낮에 방문해서 책도 읽어 봐야겠네요. 도서관 주변도 잘 꾸며져 있고 주변에 오동공원이 잘 꾸며져 있어 책 읽다 숲속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말 그대로 숲속에 있는 도서관이네요.

(오동숲속도서관 네이버 리뷰, 황금들녘78님)



오동근린공원 안에 자리 잡은 한적하고 예쁜 도서관이네요. 안에 카페도 있어서 책도 읽고 힐링하기 좋아요.

(오동숲속도서관 네이버 리뷰, 리싱님)



오동근린공원 안에 자리잡은 한적하고 예쁜 도서관이네요
안에 카페도 있어서 책도 읽고 힐링하기 좋아요

오동 공원 산책하다 들렀는데, 너무 좋았다. 예쁘고 쾌적하고 편하고 성북구가 큰일 했네. 휴가 내고 종일 책 읽으러 가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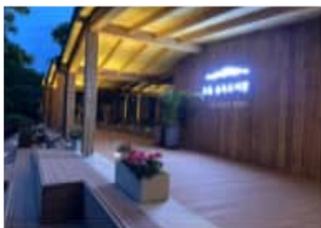
(오동숲속도서관 네이버 리뷰, نوم일님)



오동 공원 산책하다 들렀는데 너무 좋았다. 예쁘고 쾌적하고 편하고 성북구가 큰일 했네. 휴가 내고 종일 책 읽으러 가야겠다



▲ 도서관 전경



▲ 도서관 입구



▲ 어린이도서 공간



▲ 일반도서 공간



▲ 도서관 봄 모습





▲ 도서관 여름 모습



▲ 도서관 가을 모습



▲ 도서관 겨울 모습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유수현 위원

KISTI 융합서비스센터 센터장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명**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 ▶ **도서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공원길 80
- ▶ **도서관규모** 대지 757㎡, 건축물 2,765㎡
- ▶ **도서관장서** 전체장서량 181,128권(도서 167,261권, 연속간행물 44종, 시청각자료 13,867점), 장서 구성의 특징: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전자도서관 구비, 주민요구 기반의 장서확충, 점자 및 큰글자도서를 구비하고 있음

▶ 홈페이지 등 주소

홈페이지 <https://lib.sdm.or.kr/sdmlib/index.do>

페이스북 facebook.com/sdmlib

블로그 <https://blog.naver.com/sdmlib2005>

유튜브 <https://www.youtube.com/@user-gr2ey6ex7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utmxiqb

도서관 개요

▶ 도서관 비전

- 미래지향, 편안한 공간, 사회적 독서, 지역사회 성장

▶ 도서관 역사

2005. 9. 15.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건립
- 2003년 미국 유학 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이진아 양을 기리기 위해 가족들이 사재를 기증해 설립한 기념도서관

▶ 도서관 사람들

- 사서직 15명 내외
2023년도 연간 이용자 수: 233,993명
가입회원 수: 3,537명

▶ 도서관 공간

- 지하1층 : 다목적실, 직원식당, 보존서고
1층 : 안내데스크, 카페, 유아열람실, 어린이열람실
2층 : 다문화자료실, 전자정보열람실, 상상공유마당, 도예공방, 문화사랑방
3층 : 종합자료실 I, 스튜디오진아, 문화창작실, 강의실, 수유실, 휴게실
4층 : 종합자료실 II, 사무실, 휴게실, 명예관장실
외부공간 : 서대문독립공원, 안산자락실, 북카페 등



▶ 도서관 서비스

• 독서동아리

수, 금요일에 운영하는 성인독서동아리, 중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독서동아리, 초등 1~2, 3~4, 5~6학년 별 초등 독서동아리

• 문화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어 뮤지컬, 방송 스피치 성우교실, 한자로 쉽게 시작하는 미디어리터러시, 놀면서 배우는 한자 운영 미술 프로그램으로 흥익 창의 미술, 보내티컬아트 운영 도예 프로그램으로 꼬마 도예가, 손물레, 전기물레, 도자기공예반 운영

• 스튜디오진아 대관

주민을 위한 미디어 창작공간 지원과 구립도서관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을 위한 오픈 창작 스튜디오
아이디어룸, 창작룸, 편집실에서 영상 장비 및 기자재 활용으로 스튜디오 창작물 제작과 온라인 강의 진행

• 장보고 경제특강

청소년들에게 경제지식 습득의 기회 제공

• 서대문 책이요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임산부 및 장애인에서 책꾸러미 또는 원하는 도서를 무료로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도서 대출 서비스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 **스튜디오진아**

각종 촬영 및 오디오 장비를 활용하여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며, 즉석에서 영상편집도 가능한 공간이다.

- **도예공방**

점토를 빚고 물레를 돌리며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다.

▶ 프로그램

-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어르신 메타버스 이해, 다양한 프로그램 기반의 ChatGPT 경험 등 50대 이상 장년층부터 노년층의 눈높이에 맞추어 미디어 콘텐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수행한다.

- **자기 계발과 진로 모색을 위한 청소년 수련 활동 인증 프로그램**

서대문 장보고 경제스쿨 프로그램, 하나 금융 어린이 클래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서대문 장보고 경제스쿨은 아이들이 주변에서 현상을 골똘히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 **지식정보 취약계층 프로그램**

장애인과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책배달 서비스 “서대문 책이요”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대문 구립도서관과 서대문시니어클럽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서대문시니어클럽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 20명이 도서관에 파견되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 기타

• 도서관 향후 계획

이용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수서 방향 설정
열람실별 특성과 주제에 따른 대출 현황, 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의 특화 수서 분야(문학, 역사, 철학)를 고려한 수서를 진행한다.

•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 지속

다양한 주제 분야의 전자책, 오디오북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서대문 구립도서관 전자자료(전자책, 오디오북, DVD)의 홍보를 지속한다. 또한, 서대문 구립도서관 전자자료의 이용 자격 조정으로 인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한다.

• 지식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도서 확충

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체 자료(큰 글자 도서) 장서를 확충할 예정이다.

• 다양한 회원 가입경로 홍보 진행

구립, 책이음, 시민 카드와 같은 다양한 회원 가입경로에 따른 홍보를 진행하여 안내 서비스 안내를 통한 공공성을 강화한다.

• 스마트도서관 정기적 관리

정기적인 스마트도서관의 도서 구입과 교체로 신간 도서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한다.

도서관 이야기

- **이진아기념도서관 유래**

2003년 불의의 사고로 딸 이진아 양이 숨지자, 가족들은 딸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의 건립 기금을 기부하였고, 시민들을 위한 구립도서관이 이진아 양의 생일인 2005년 9월 15일에 개관하였다.

- **故이진아양 추모 20주기 음악회(2023년)**

故이진아양이 세상을 떠난 지 20년이 지나 이를 기리기 위해 음악회를 개최하였는데, 도서관 개관 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으로 도서관을 처음 방문해 18년간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며 사회인으로 성장한 최문정 씨가 음악회의 사회를 맡았다. 또한, 독서 동아리 회원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를 시작으로, 이진아 양의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현악 동아리 '마스터피스'가 이진아기념도서관 헌정곡 '도서관은 항상 여기에 있어'를 포함하여 다양한 연주를 들려주었으며, 시와 문학을 주제로 공연하는 뮤직밴드 '스와뉴'가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 **우수도서관상 수상**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상(2016), 국무총리상(2009, 2012), 국무총리 표창(20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2010, 2015), 특별상(2011)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서울시장상, 도서관 현장 발전 사례 공모국립중앙도서관장상, 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과, 서울특별시



건축상 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서대문 책으로 축제**

매해 가을, 우수이용자 수상식과 마술쇼, 음악회 및 어린이 독서퀴즈왕 대회 등 구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수 진행하며, 야외도서관과 플라마켓, 체험 부스들도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 **마지막 선물**

한 구민께서 이진아기념도서관이 터 닦는 작업부터 완공까지의 모든 과정을 사진으로 찍고 CD에 담아 도서관 개관식 날 도서관 앞에 남겨두고 가셨다. 거기에는 ‘우리 동네에 도서관이 생겨 좋지만 그래도 진아양이 살고 도서관이 없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가 함께 담겨 있었다.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 **쉼터 같은 도서관**

이진아기념도서관은 구민에게 쉼터 같은 존재입니다.

자연 속에 위치하여 구민에게 맑은 공기와 장소를 제공하며, 누구나 와서 책을 읽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는 공원이 있어 안이 갑갑하면 밖에 나가 바람과 햇빛을 맞으며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지식정보 취약계층 간의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원이 있어서 노숙자분들도 가끔 들어오시는데요. 오히려 그분들도 도서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분들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 오원택 주임)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 가족과 같은 도서관

우리 도서관은 저에게 가족과 같은 도서관입니다. 저와 같이 책을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을 열고, 나는 친구가 부모에게 못할 사춘기의 고민을 저에게 털어놓을 정도인데요. 이렇듯 이진아기념도서관은 아이가 커가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고 돌보아 주는 가족과 같은 도서관입니다.

• 도서관이 나에게 주는 의미

저는 개관 다음 해에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서 18년째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독서동아리에서 저와 함께 훈련하다가 이제는 지도자로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가르쳤던 초등학생 친구가 직장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내가 몸 담고 있는 지역도서관이 나에게 동아리를 조직하고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를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이진아기념도서관의 독서동아리는 저에게 선물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이진아기념도서관은, 도서관을 자주 활용하는 지역주민이 도서관 활동과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역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습니다.

• 독서동아리 향후 계획

서대문 관내 중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과 교육청을 연계해서 방학 특강 프로그램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도서관 및 교육청 등에서 관심 가져 주셔서 지역도서관이 지역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도서관에 바라는 점

작은 도서관이나 지역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역도서관은 작은 음악회를 통해 가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문학 프로그램 등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좋겠습니다. 독서 동아리의 경우, 세대나 성별 등을 보다 세분화하고, 독서 프로그램과 연계된 공식적인 문화 답사 프로그램, 가족에 중점을 둔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제안해 봅니다.

(독서동아리 운영자 김은실)

• 서대문 책이요 이용 후기

-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
- 바쁜 육아 중에 아기와 엄마 모두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음, 이런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홍보도 잘하면 좋을 것 같음
- 임산부라서 거동이 힘들고 책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대출/반납을 대신 해주셔서 감사했음
-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할 때, 밖에 나가는 것이 참 힘들.

- 아기에게 더 다양한 책을 읽어주고 싶어 고민하던 중 정말 좋은 서비스를 접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양질의 책을 많이 읽어줄 수 있었음. 이진아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책 꾸러미를 전해 주신 활동가 선생님께 정말 감사함
-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기 어려웠는데 책을 가져다주시니 아이에게 다양한 책을 보여 줄 수 있어 좋았음
 - 시간 절약과 편리함, 그리고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고 들었음
 - 나갈 수 없는데 직접 가져다주신 점
 - 다른 지역의 책배달 서비스 경우 일반택배사를 이용하는데, 서대문구는 시니어분들께서 배달해 주시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음
 - 필요한 책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어린아이들과 먼 도서관 이용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됨
 - 도서관까지 시간을 절약
 - 편리해서 좋았음
 - 매우 편리함
 - 배송서비스
 - 임신으로 힘들었을 때 책 꾸러미를 배송해 주니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음. 다양한 육아 책을 접할 수 있어 좋았음
 - 이동이 불편한 임산부, 신생아 육아 때 집에서 받아 볼 수 있어 좋았음
 - 아이가 어려 바깥 외출이 어려운데 집까지 대여할 책을 배송해 주셔서 다양한 책을 아기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음
 - 편리함



- 임신, 출산으로 인해 책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음
- 육아할 시간이 부족한데 너무 유용하고 편리했음
- 아기 책을 시간 절약해서 집으로 배달해 주니 좋았음
- 아이가 아파서 집 밖을 나가기 힘들 때도 책을 빌려서 읽어줄 수 있어서 좋았음

-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
 - 바쁜 출근중에 아기랑 엄마 모두 책을 읽을 수 있어 좋았음. 어떤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홍보도 잘 하면 좋을 것 같음
 - 임신부로서 거동이 힘들고 책이 무겁게 느껴지는데 대출/반납을 대신 해주어서 감사했음.
 -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할 때, 밖에 나가는것이 참 힘들. 아기에게 더 다양한 책을 읽어주고 싶어 고민하던 중 정말 좋은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그 덕분에 영아의 책을 많이 읽어줄 수 있었음.
 - 어린이 도서관 사서 선생님과도 좋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책 꾸러미를 친절히 주신 활동가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함.
 - 아이를 데리고 도서관에 가기 어려웠는데 책을 가져다 주시니 아이에게 다양한 책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음.
 - 시간절약 과 편리함. 그리고 어르신들 일차라 힘들어 도음이 된다고 들었음
 - 나갈 수 있는데 책만 가져다주신 점
 - 디지털의 책 배달 서비스 경우는 일반책배서를 이용하는데, 서대문구는 시니어분들께서 배달해주시니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음.
 - 필요한 책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어떤 아이들과 먼 도서관이 힘들었는데 큰 도움이 됨
 - 도서관까지 시간을 절약
 - 편리해서 좋았음
 - 매우 편리함
 - 배송서비스
 - 임신으로 힘들었을 때 책 꾸러미를 배송해주니 큰 혜택을 받은 것 같아 기분이 좋았음. 다양한 유아책을 접할 수 있어 좋았음
 - 이용이 불편한 임신부, 신생아 육아 때 집에서 받아들 수 있어 좋았음.
 - 아기가 여러 번갈아읽어 어려운데 집까지 대여할 책을 배송해주셔서 다양한 책을 아기에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았음
 - 편리함
 - 임신,출산으로 인해 책을 편하게 받아볼 수 있었음
 - 육아할 시간이 부족한데 너무 유용하고 편리했음
 - 아기 책을 시간 절약해서 집으로 배달해주니 좋았음
 - 아이가 아파서 집 밖을 나가기 힘들 때도 책을 빌려서 읽어줄 수 있어서 좋았음

• **독서아카데미 수강생 후기**

- 석유는 중동에 무엇을 가져다주었나?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 땅 중동!! 이 전쟁의 원인에는 석유가 있다.
 사막의 땅 중동에서 석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서구 열강은 중동에 관심을 두게 되고 정치 경제학으로 개입하면서 분쟁이 일어난다. 미국 영국 등의 열강과 중동 국가들을 서로 필요를

- 탈석유 미래와 중동:석유가 있어도 끝나는 석유 시대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라는 말이 있다. 석유가 있기 때문에 지구촌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그 말은 석유가 없다면 존재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요즘, 중동이 위험하다. 지구촌에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기술을 발달로 중동 석유 의존도도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대표적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변신이 눈길을 끈다. '탈석유', '젊은 세대', '온건 이슬람'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는? 어떤 변신을 해야 이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 말미에 문득 '우리나라'의 현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동'이라는 한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연결된 지구촌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제목	석유가 없어도 위험하지 않다.
주요내용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기술을 발달로 중동 석유 의존도도 낮아졌다.
강연주제	탈석유, 젊은 세대, 온건 이슬람
강연기간	2013년 10월 24일
강연장	2013년 10월 24일

‘석유 없는 중동은 아프리카다’라는 말이 있다. 석유가 있기 때문에 지구촌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그 말은 석유가 없다면 존재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요즘, 중동이 위험하다. 지구촌에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기술을 발달로 중동 석유 의존도도 낮아졌다. 그래서일까 대표적 산유국 사우디아라비아의 변신이 눈길을 끈다. ‘탈석유’, ‘젊은 세대’, ‘온건 이슬람’으로 변하고 있다. 그럼, 우리는? 우리나라는? 어떤 변신을 해야 이 지구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시간 말미에 문득 ‘우리나라’의 현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시간이 ‘중동’이라는 한 지역에서 시작했지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지구촌 이야기를 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한다.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서대문구립 이진아기념도서관 전경



▲ 이진아기념도서관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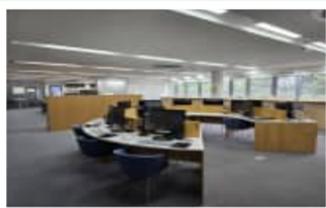
▲ 이진아기념도서관 내부(1층 데스크)



▲ 이진아기념도서관 내부(어린이열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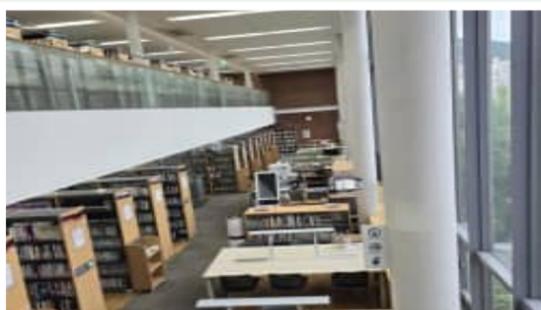
▲ 이진아기념도서관 내부(유아열람실)



▲ 이진아기념도서관 내부(어울림누리터)



▲ 이진아기념도서관 내부(어울림누리터)



▲ 이진아기념도서관 내부(종합자료실)



진천군립도서관

차 지 은 위원
한국교육개발원 성과확산실 선임전문원

도서관 기본정보

- ▶ 도서관 명 진천군립도서관
- ▶ 도서관 위치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포석길 37-6
- ▶ 도서관 규모 대지 33,000㎡, 건축물 6,110㎡
- ▶ 도서관 장서 전체장서량 117,425권
(비도서 포함, 2023.12.31. 기준)
- ▶ 홈페이지 등 주소
홈페이지 lib.jincheon.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jclib2012
인스타그램 www.instagram.com/jclib2012

도서관 개요

▶ 도서관 비전

- 책 읽는 진천의 행복한 미래를 여는 도서관

▶ 도서관 역사

- 2008. 10. 진천군립도서관 기본 및 실시 설계 수립
- 2011. 8. 진천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2012. 10. 진천군립도서관 개관

▶ 도서관 사람들

총 14명(도서관정책팀 4명, 군립도서관팀 9명)

▶ 도서관 공간

지하1층 : 사무실, 청춘카페(북카페, 휴게실), JLB스튜디오,

보존서고, 대강의실, 동아리방1, 웹툰서거전망대

1층 : 소강의실1·2, 동아리방4, 어린이자료실, 유아자료실,
상주작가실

2층 : 종합자료실1, 열린학습실, 통신실, 동아리실

3층 : 학습실, 정보화교육장, 종합자료실2, 무선인터넷실

외부공간 : 잔디밭, 북크닉장소(파라솔), 창의미래센터, 전망대,
진천군 제1호 근린공원

▶ 도서관 서비스

도서관주간 행사

문화교실 및 방학특강



강사양성프로그램

느린 학습자와 함께 꿈꾸는 도서관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 '북스타트'

책 읽어주는 도서관

도서관만의 차별화된 특징

▶ 공간

- **우리 도서관만의 특별한 축제, 생거진천 BOOK 페스티벌**

진천군의 유일한 책! 축제! 생거진천 BOOK 페스티벌이 도서관 앞 잔디광장에서 매년 진행된다. 올해에는 진천의 책 선포식, 박운경 작가님과 최태성 작가님의 만남 및 저자사인회, 버블매직쇼, 알뜰도서관교환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평상시에는 접하기 어려운 체력 검증, 샌드아트, 북스타트, 수어 체험, 전통놀이 등 각종 체험 행사 부스를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도서관 앞 잔디광장과 인근 근린공원을 활용한 독서피크닉존 운영을 통해 친근한 독서 문화 공간 및 도서관 분위기도 조성하였다.



▲ 도서관 앞 잔디밭



▲ 도서관 앞 잔디밭을 활용한 행사(북페스티벌)

▶ 프로그램

• 책과 함께하는 북크닉

도서관 잔디광장과 인근 공원에서 가족이 책과 함께 소풍을 즐기는 책과 함께하는 북크닉은 24년도에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이다.

도서관 실내를 벗어나 야외공간을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여 독서, 놀이, 휴식이 있는 독서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24년도에는 6월과 12월 주말에 운영된다.

북크닉 꾸러미는 피크닉세트, 캠핑체어, 보드게임, 도서 2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북크닉을 통해 자연 속에서 여유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독서에 관한 관심을 높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 도서관 앞 잔디밭을 활용한 프로그램 (복크닉)

• **눈을 마주 보며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생거진천 사람책’**

생거진천 사람책이란 다양한 지식, 정보,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한 권의 책이 되어 독자와 1:1 또는 1:다수로 만나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이 빌리는 것은 책이 아니라 사람이 되는 양방향 소통 대출 서비스이다.

생거진천 사람책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사람책은 총 44명이며 문학, 글쓰기, 예술, 농업, 취미, 인문학, 경영 및 창업, 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독자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사람책을 대출 신청하면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한 뒤 만남이 이루어진다.



◀ 2024 진천의 책 사진

- **인문학으로 행복을 만끽하다! “일상이 되는 인문학”**

일상이 되는 인문학은 철학자, 인문학자, 문학 작가 등 군민이 만나고 싶어 하는 저명한 작가를 매월 한 번씩 우리 군으로 초청하여 매월 1회씩 진행한다. 올해는 ‘2024! 인문학으로 만나는 사유와 통찰의 삶!’이라는 주제로 의학, 문학, 철학, 과학, 인문 고전 등 다양한 분야 인문학자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도서관 운영자 한마디

우리 도서관 앞에는 넓은 잔디마당이 있으며, 공원이 인접해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넓은 잔디마당과 공원을 활용하여 진천군립도서관에서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매년 ‘생거진천 BOOK 페스티벌’이라는 책 축제가 도서관 앞 잔디마당에서 열립니다. 각종 공연과 다양한 체험 부스, 작가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며 매년 많은 이용자 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은 올해 처음 선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책과 함께 하는 북크닉”입니다.

도서관 실내를 벗어나 야외공간을 독서 공간으로 활용하여 독서, 놀이, 휴식이 있는 독서 활동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으며, 주말에 가족이 함께 북크닉 세트를 빌려 잔디마당에서 책과 함께 소풍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앞 잔디마당과 공원을 이용하여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이용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도서관 이용자 한마디

- **생거진천 BOOK 페스티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가 개최되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다양한 체험 부스들과 작가와의 만남, 공연은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축제의 평범한 의자와는 달리 잔디밭에 설치된 빈백에 앉아 축제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도 또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 **북크닉**

우연히 게시판에 걸린 홍보문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는데 가방 안에 여러 가지 보드게임과 돛자리, 도서까지 알차게 구성되어 특별한 준비물 없이 도서관 앞 잔디밭에서 아이와 함께 느긋하게 피크닉 온 것처럼 즐길 수 있어 좋았어요. 날씨가 시원해지면 한 번 더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 **북스타트 오감 발달 놀이 (중 곱지락 만지락 그림책 놀이)**

아이가 어려서 뭔가 하기가 어려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개설해 주셔서 감사해요, 잘 뛰어지지 않는 손으로 곱지락곱지락 그림책 놀이를 하는 과정들이 책을 처음 접하는 아이에게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 진천군립도서관 전경 사진



▲ 도서관 앞 잔디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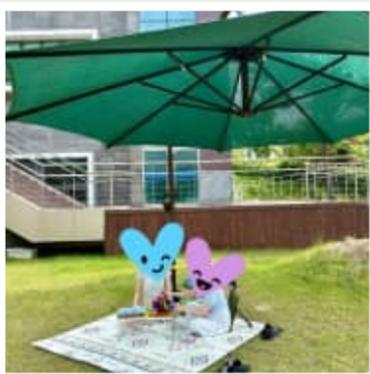
▲ 도서관 앞 잔디밭을 활용한 행사 (북페스티벌)



▲ 2024 진천의 책 사진



▲ 도서관 앞 잔디밭을 활용한 프로그램(북크닉)





80th Founding
ANNIVERSARY

K-라이브러리 홍보위원회 **숲속에서 만난 도서관**

발행인 | 곽승진

발행처 | 한국도서관협회

발행일 | 2025년 6월 30일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 02-535-4868

팩스 | 02-535-5616

홈페이지 | www.kla.kr

인쇄 | (주)계문사(02-725-5216)

ISBN | 978-89-7678-404-9 93020

비매품

무단 전재 · 복제를 금합니다.



한국도서관협회

광교문헌술도서관 구립상립도서관 공동체도서관 상청공민술속도서관 방배술환경도서관
야차산술속도서관 오동술도서관 이진아기념도서관 진천군립도서관



ISBN 978-89-7678-404-9